

화장품 1조클럽 속출... K-뷰티 신흥강자, 글로벌 질주

뉴 K-뷰티 삼두마차

에이피알과 구다이글로벌, 달바가 뉴 K뷰티의 삼두마차를 형성하며 질주하고 있다.

올해 상장 3년 차를 맞은 에이피알과 기업공개(IPO)를 앞둔 구다이글로벌이 1조원대의 연 매출을 달성하며 K뷰티 메가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상장에 성공한 달바 역시 성장세에 있다.

기업공개 앞둔 '구다이글로벌' 매출 294%, 영업이익 98% 급증 티엠뷰티가 전체 실적 견인

에이피알 '메디큐브' 매출 1조 '에이지알' 뷰티디바이스 4069억

1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구다이글로벌은 2025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1조4718억원, 영업이익 273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94%, 영업이익은 98% 급증한 규모다. 메이크업 브랜드 티르티르,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 1세대 뷰티 브랜드 스킨푸드 등 유망 중소브랜드를 잇달아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한 성과다.

구다이글로벌이 공시한 연결감사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열린 틱톡샵 행사에 K뷰티 부스가 설치됐다. /스킨1004

고서를 종속 기업별로 살펴보면, 티엠뷰티가 매출 6780억원, 당기순이익 389억원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티르티르는 2291억원의 매출과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번 구다이글로벌 실적은 각 브랜드 인수 시점 이후 실적만 반영된 수치다.

티엠뷰티는 구다이글로벌이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을 인수하기 위한 설립한 중간 법인이다. 특히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은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를 운영하고 있다.

스킨1004의 경우, 미국은 물론 유럽 등 글로벌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

지난해 상장한 '달바'도 성장세 올해 실적 목표, 매출 7000억 해외 비중 70%, B2B 40% 중점

난 12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인근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현지 소비자를 공략했다. 해당 행사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틱톡샵이 주최한 것으로 200여 명의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했다.

스킨1004는 여름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 맞춰 무더운 야외 환경에서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여주는 K스킨케어를 제

안했다. 지난해 11월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획득한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 핏 선크림' 등 브랜드 대표제품을 선보였다.

구다이글로벌 측은 "각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수익 구조 다각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이후 코스피 시장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년 기업공개로 올해 상장 3년 차에 접어든 에이피알은 단일 브랜드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해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만으로 화장품 사업에서 1조 77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18% 대폭 증가한 규모다. 또 뷰티 디바이스 사업으로는 4069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30% 늘었다.

가장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고도화해 최근에는 콜라겐, PDRN 등 차세대 성분을 결합한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PDRN 제품군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올해 2월 5000만 개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첫 출시 후 약 20개월 만의 기록이다. 2025년 7월 누적 판매 1500만 개를 기록하면서 이후 7개월 만에 약

23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을 통해 스킨케어의 효능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K뷰티 정체성에 뷰티테크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에이지알의 국내의 누적 판매량은 600만대 수준이다.

제2의 에이피알로 지난해 상장에 성공한 달바 역시 성장세에 있다.

달바는 지난해 연간 매출 5198억원, 영업이익 1011억원, 영업이익률 19% 등으로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69% 증가했다. 올해는 실적 목표치는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률 21%다.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B2B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도, 중동, 남미 등 3개 신규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채용과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형 브랜드 기업에 이어 신흥 브랜드가 IPO에 나서고 있고, 이후 성공세가 안정적인 케도에 들어선다면 또 다른 차원의 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CJ올리브영,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도입

MD·마케팅 담당자, AI 도구 직접 구축 매장 진열·재고 현황 실시간 파악 국가별 언어·고객 맞춤 상품정보 제공

CJ올리브영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전 구성원의 업무 환경에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최근 유통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개인화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AI)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도

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은 우선 업무 전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구성원 누구나 업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비개발 직군인 상품기획자(MD)나 마케팅 담당자도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구축해,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시장 조사, 고객 데이터 분석 등에 적용한다.

매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인공지능으로 매장 진열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

올리브영은 향후 물류 네트워크 등에도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별 언어 환경과 고객 특성에 맞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구성원 개개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여 조직 전반에 AI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들의 경험을 지속 고도화하며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파마리서치, 통합 메디컬 에스테틱 제시

'ASLS 코리아 2026' 참가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지난 11~1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마용성형레이저의학회마용의료기기 박람회 및 춘계학술대회(ASLS 코리아 2026)'에 참가해, 부스 운영과 학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진이 모여 미용의학 분야의 최신 기술, 임상 경험, 시술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학술행사다.

파마리서치는 주요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통합적으로 선보였다. 현



지난 11~1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ASLS 코리아 2026' 현장 내 파마리서치 부스 전경. /파마리서치

장에서 대표 품목인 리주란을 비롯해 PLLA(폴리락티드) 기반 바이오스티물레이터 에버클, HA(히알루론산) 필러 리주비엘 등을 소개하며 폭넓은 미용의학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1.8조 주식 소각... 창립 來 '역대최대' 규모

총 발행 주식수 3.94% 수준 주주에 주당순이익 개선 효과

셀트리온은 창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13일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911만주는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 발행 주식수의 3.9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액수로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82억원 규모로, 2024년(약 7013억원)과 2025년(약 8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 합산액을 뛰어 넘는다.

특히 이번 소각 자사주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

로 보유하려 했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가능한 모든 물량을 소각에 투입했다. 향후 스톡옵션 보상은 필요시 신주 발행 방식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주당순이익(EPS) 개선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전체 이익은 동일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어 따라 주당 배되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 투자 지표가 조정돼 주요 투자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7.5%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회사는 올해 매출액 약 5.3조 원, 영업이익 1.8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소각 후 남은 자사주 약 323만 주는 향후 글로벌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본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단순히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준다는 시장과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며 "역대급 대규모 소각으로 인한 투자 지표 개선과 올해 본격화될 실적 성장 시너지를 내면서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씨셀, '부패방지·준법 경영' 인증 유지

검체검사 분야서 유지 유일 사례

지씨셀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과 준법 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한국준법진흥원에서 갱신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3년 최초 취득 이후 운영 체계를 유지·고도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글로벌 기준이다. 기업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범을 기반으로 부패 및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이다. 한국준법진흥원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왼쪽부터)김재왕 지씨셀 대표, 이용기 한국준법진흥원장, 원성용 지씨셀 대표 등이 규범준수·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GC녹십자그룹

지씨셀은 제약·바이오 사업 전반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고 검체검사 분야에서는 ISO 37001과 ISO 37301 통합 인증을 갱신까지 유지한 유일한 사례다.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준법경영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청하 기자